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 예배순서 >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도	· 다함께
· 성시	· 시편 1:1~6 · 인도자
· 찬송	· 305 · 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 눅 13:6~9 · 인도자
· 메시지	· 가을과 열매 · 인도자
· 찬송	· 404 · 다함께
· 주기도	· 다함께

가을과 열매

(눅 13:6-9)

들어가는 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석 감사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가꾸고, 가을에는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입니다.

I.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름값을 해야 한다

포도나무이면 포도열매를 맺어야 하고 무화과나무이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명색이 무화과나무이면서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는 하나도 없이 잎만 가지고 때우려 한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원 주인이 이를 짚어 버리려고 한 것은 조금도 지나친 처사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럴싸한데 유명무실한 것들이 세상에 수도룩합니다. 명색은 신자인데 그의 언행에서 신앙을 찾아볼 수 없고, 간판은 예수교인데 예수가 없다면 도대체 그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짚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원 주인으로서 언제까지나 땅만 버려둘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II. 자리 값을 해야 한다

과원의 주인은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리 값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기대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 주인을 흠족케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금년에도 열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연히 땅만 버릴 주인은 없습니다. 결국 도끼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백병전을 벌입니다. 집터도 좋은 자리, 취직도 좋은 자리, 배우자도 좋은 자리를 찾기에 자못 혈인입니다. 이를 나쁘다고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그 자리 값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리를, 부모 앞에서 자식의 자리를, 국가 사회 앞에서 건전한 시민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선 자리 값을 하고 있습니까?

III. 나이 값도 해야 한다

아무리 무화과나무라 할지라도 아직 열매의 때가 되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구했다면 이는 주인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는 벌써 3년 전에 열매를 맺었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나무는 3년을 계속 부실수(不實樹)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상 더 남겨두는 것은 땅만 버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예수님을 영접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미진아처럼 자기만 위해 달라고 보채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연세가 얼마뇨'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나이 값을 해야 합니다.

맺는 말

하늘이 높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가위 중추절에, 잎만 무성하여 자신의 부실(不實)을 엄폐(掩蔽)하려는 저주 받은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우리 가족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 값, 자리 값, 나이 값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추석연휴에 성경통독사경회 열린다

24일(월), 25일(화) 이틀간

추석 연휴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우리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통독사경회를 올해도 준비하였다. 24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일(화) 역시 오전 8시부터 낮 12시(정오) 까지 신약성경 전권을 통독한다.

떡을 먹으며 가족과 보내는 추석 명절에 말씀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성도들이 많기를 기대한다. 참여하실 분은 개역개정판 성경, 색연필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 등록비는 10,000원이다. 24일(월)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추석 구제로 이웃 사랑

우리교회는 지난 13, 14일 이웃사랑과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대치동과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각각 구제를 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헤메고 있는 탈북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일을 위하여 북한구원운동본부에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교회 내의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9월초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 바 있다.



2007 사명자 대회

10월7일(주) - 11월25일(주) · 50일간

2007 사명자 대회가 10월7일(주)부터 11월25일(주) 교회설립 기념 주일까지 계속된다. 서울교회 설립 50일 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은 대회로 말씀과 기도의 작전인 흥해작전과 더불어 기도와 전도의 장인 사명자 대회는 태신자 작성, 특별전도 집회, 사명자 새벽 기도회, 24시간 연속기도 등 다양한 행사로 준비된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복음화할 사명자 되어 기도와 전도에 힘쓰도록 기도한다.

- 주 제: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사51:17)
- 주제찬송: 248장(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행동강령:

1. 온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2. 신행일치의 삶을 실천하여 진리의 빛을 발하자
3. 천국시민으로 만민에게 전도하며 빈약한 자를 구제하자

- 기도제목 -

1. 우리는 사명자로서 자기중심적인 모든 가치관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에 힘써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4. 우리는 문화의 변혁자로서 모든 죄악된 생활을 배척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생활로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5.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

임없이 기도하며, 오직 복음화된 조국통일이 속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조직 >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지도:** 이태훈 목사 **본부장:** 윤찬오 장로
- **진행분과:** 최규초, 진행-조동완(이동만 유기찬 진교남 손병석 최홍열 장양일 한종우 이영조 최광성 김성준 이강인 조성열 이경구 권혁우), **통계-**김복승(김재중 유형석 이강진 손태기 이병현 김행배 박희서 박정수), **발송-**이혜경(곽미숙 신선주 박순복 석상화 최봉희 이재운 장명순 윤현미 박상희 김보경 박신자 양경실)
- **홍보분과:** 김규태, 허숙, 서춘식 신동기 유태서 김민철 오주명 유은경 나소정
- **전도분과:** 은기장, 한상준, 유은상 안홍희 원용규 박광식 박명철 김영희 이규희 김숙자 남태순 박정임 최중희 박태선 배준길 손영호 김은순 박옥 박이선 박길희 최성희 노정숙 김규희 윤용미 남현주 현승희 김옥 김해중 강승웅
- **기도분과:** 주동재, 윤명구, 윤숙희 김유경 강낙훈 안미경 한주찬 배병이 장낙희 서명조 한성욱 김정운 한인진 박정순 이승래 정동학 이남성 김혜련 박춘자 한광파 박현영, 홍창배, 황노전 김재근 유숙인 김선영 홍창배 이신애 김은순 박미혜 김옥
- **교육분과:** 최양진, 교육부서 지도교역자, 부장
- **안내분과:** 김진환, 이광열, 이제원 강석우 김대웅 한춘홍 이남성 장덕 이종형
- **재정분과:** 홍승전, 배재송 양춘경 김한성 전수자
- **봉사분과:** 임옥균, 김영식 이순희 정종숙 김혜란 서정현 안미경

새생명교회 진중합동 세례식

10월17일(수) 오후7시

우리교회가 파송한 군선교사인 이경현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진중합동 세례식이 10월17일(수) 오후7시 거행된다. 더욱 많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5교구)장낙희 권사
- <4독> (7교구) 채복순 권사 (11교구) 김해수 집사 노영숙 권사
- <2독> (6교구) 하정자 권사 (10교구) 이점숙 권사 (14교구)곽선자 권사
- <1독>
- (1교구)박형수 집사
- (2교구)김경희 권사 손현순 권사
- (3교구)김영주 집사 신선주 집사 안창휘 집사 이경실 집사 이동구 집사 이학주 집사 정봉금 권사 (5교구)김영희 집사 김남옥 집사 이광열 집사 이현정 집사
- (6교구)서명조 집사
- (7교구)백영자 권사 윤문자 권사 진경옥 권사 (10교구)서순영 권사 전완순 권사 (11교구)노문환 장로
- (12교구)김진환 집사 황주원 성도 허현숙 권사 (13교구)박옥경 성도 서중숙 집사 윤용진 성도 인계선 권사 정효자 권사 주동재 집사

금주의 성구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창세기 22:7-8)

Isaac spoke up and said to his father Abraham, "Father?" "Yes, my son?" Abraham replied. "The fire and wood are here," Isaac said,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And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Genesis 22:7-8 [NIV])

성경일천독 대장정 - 성경1독 어린이들을 만나다

성경으로 꿈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나다!

서울교회 역사상 유래가 없던 성경 일천독 대장정
으로 온 교회가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

여름방학을 이용해 성경1독을 끝낸 초등부 학생
들이 있다고 하여 만나 보았다. 어린이 찬양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어린이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박연경, 정휘준, 한세희 그
리고 연경양의 동생인 3
학년 박연준, 총 네명,
특히 연준군은 이번 성
경1천독 최연소 통독자
다.

처음, 인터뷰라는 말
에 아이들은 긴장한듯
머뭇거렸지만, 잠시 시
간이 지나자 너도나도
입을 열었다.



- 연경: “전 시편이 편수가 많아서 읽기 힘들었어요”
- 휘준: “요한계시록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 세희: “저도 요한계시록”

150편이나 이어지는 시편의 양이나, 요한계시록
의 예언, 은유가 아이들
에게는 버거웠던 것으
로 보인다.

Q, 그럼 성경을 읽으 면서 재미있었던 부분 은?

- 휘준: “전 시편 24
편이요”
- 연경: “열왕기상,
하가 재미있었어요. 구절 전체
가 거의 다 재미있었어요. 이야
기책 같아서(웃음)”

· 세희: “창세기, 사사기, 여호수아요. 성취감이
있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1독을 끝낸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2독에
도전하겠다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1독을 채 끝마치지 못한 기
자는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의 아이들이, 단단하
게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Q, 성경 1독을 했는데 성경 을 언제부터 하루에 몇 장씩 읽었나요?

- 연경: “1월 말부터 하루에 10장씩 읽었어요”
- 연준: “저도 1월 말부터 읽었어요”
- 휘준: “전 3월쯤부터 10장씩 읽었는데, 중간에
밀려서 마지막에는 20장씩 읽었어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장 정도를 읽었다
고 했다. 소요시간은 약 40분에서 1시간 사이. 앞으
로도 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데에
도 좋은 방법으로 보였다.

Q,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오주명(편집부)

천국시민양성 - 다락방을 개학하며...

자꾸 모이고 싶은 다락방을 만들자!



김영준 장로(교구위원장)

몹시도 더웠던 폭염 속의 무더
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과 은총이 우리 서울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셨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고 또한 무더위
로 다락방 모임에 무리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
여 잠시 방학하였지만 이제 9월부터 개학을 하면서
모든 간사님들을 비롯하여 교구일꾼들은 연락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차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차질 없
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은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서 작은 교회이며 교회부흥의 근원입니다.

우리교회는 전체 규모에 맞추어 3부로 예배를 드
리기 때문에 주일날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락방에서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사랑의 교제와
함께,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요, 지체임을 확인하
며 영적성장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은혜로운 모
임이 되도록 <서울교회 다락방 수칙>을 잘 지키심
으로 더욱 성숙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며, 진실하고, 비밀을 지키
며, 서로 책임지며, 열린 마음을 가지며, 서로 격려하
라.’

건강한 다락방, 부흥되는 다락방, 자꾸 모이고 싶
은 다락방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새가족부를 마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황수경 성도 (1교구)

새가족부에 참석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서울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제 주위의 믿음 좋으신
분들의 권유와 기도로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목사
님의 말씀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 영생...
하나같이 다 나와는 상관없는, 의미 없는 단어들
이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는 관
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 주 동안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비로
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
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
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새가족부 전도사님, 장로님, 선생님들의 깊은 신
앙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601호에 들어서면 느껴지
던 그 따스함과 경건함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그 분들 처
럼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기회가 오기를 기도합
니다

천국시민양성 - 호산나학교



고구마 캐고 왔어요!

지난 9월 11일(화) 충남예산에 위치한 목양교회
인근 밭에서 호산나학교 학생 50여명, 교사 8명과 서
울교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구마 캐
기’ 봉사 활동이 있었다.

처음으로 삼,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고구마 캐기
에 참가한 학생들은 시장에서 구입해서만 먹던 고구
마를 직접 보고 만지고 캔다는 즐거움에 모두들 열심
히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이날 고구마 캐기 뿐만 아
니라 고구마 순도 함께 학생들과 교회 관계자분들이
따고 포장을 하는 봉사를 했다.

이날 행사로 캔 고구마와 고구마 순은 사랑의 집
건립 기금을 위한 서울교회 바자에 출품되었다.

즐거운 봉사로 이루어진 사랑의 나눔이 호산나학
교 학생들,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땀 흘
려 체험한 좋은 시간이었다.

만민에게 전도-총회에서 100만인 전도운동 개인상 수상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박이선 집사(3교구)

저의 가정을 서울교회로 인도 해주셔서 이종윤 목사님의 복음적인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저를 70인 전도대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4시에 일어나 차를 몰고 교회로 달려 나와 옆 드리면 저와 저의 가족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가슴 속에 밀려와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23년 전, 3살 된 아들을 잃어버리고 온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찾아 헤매다가 저녁 무렵 파출소에서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

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거부하지만 놀랍게도 준비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옵니다. 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주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녀를 위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를 100만인 전도운동의 시범교회로 뽑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70인전도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저에게 주신 전도상은 개인에게 주신 상이 아니라 70인전도대 모두의 땀과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

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미련하고 기도가 부족한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특별 찬양

<클라리넷과 플룻 이중주의 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는 우리교회 아멘 관현악단 지휘자 임범창집사의 클라리넷과 딸 임혜원 양의 플룻 이중주로 찬양을 드린다. 임 양은 현재 러시아의 썬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콘서바토리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곡목은 오늘저녁 이중주 찬양을 위해 음악감독 이영조 집사가 편곡한 '어저께나 오늘이나' (J.H. Bura 곡) 외에 두 곡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목) 북한인권과 자유, 평화를 위한 국내외 70인 목회자 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28일(금) 한국 기독교 학술원 34회 공개 강연회에 참여한다.

■ 득녀: (11교구) 정승균 집사, 송명원 성도

■ 주간식당 봉사: 스테반회(9.23) 권사회(9.30)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만민에게 전도

나의 피난처는 전도

이원의 권사(6교구)



산을 넘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극동방송을 통해 서울교회에 온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많은 눈물과 슬픔의 고난도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어 감사할 뿐입니다.

몇 주 전 수요일부터 시작한 전도였습니다. 첫날 처음 전도지 30장을 갖고 권사님을 따라 교회 밖 거리에서 50세가 넘어보이는 여자분 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여인이 큰소리로 거부하는 것을 당하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옆 은행에 들어가 '서울교회에서

나왔습니다.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30번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수요일은 전도지 70장을 가지고 서울증권 건물에서 전하였고 또 그 다음 수요일에는 전도지 100장을 가지고 더위도 있는 채 증권건물과 인천 월미도까지 가서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영혼 사랑의 마음이었지요. 일흔이 넘는 나이에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부끄럽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렇게 전하고 또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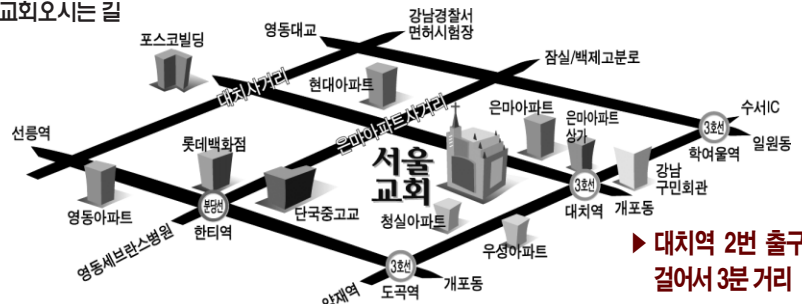
나의 삶의 목표가 전도인 것이 요즘들어 확실해 집니다. 하지만 나의 전도의 열정이 너무 격하면 주님께서 절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다 하렵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3. 다락방마다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하도록
4. 2007 사명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5. 의와 영광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